

與, '백신 접종 보이콧' 언급 의협 맹공

의협, '의사면허 취소' 추진에 '백신 보이콧' 언급 우원식 "국민 생명 불모 한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김성주 "살인 저질러도 제약 없는 특권 바로잡기" 최대집 "보복성 면허강탈법, 조폭이지 의원인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회가 21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하자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실행 가능성 등을 언급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맹공을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강패"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회가 '악법'이라 규정하

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라며 "(백신 접종 보이콧) 생명을 불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라는 대한의사회 주장이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지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료인들은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유지돼 살인죄, 강력범죄,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제약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라며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과도한 제약은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무엇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에 대해 의협 회장이 예방접종 참여 거부로 위협하다니 제 정신인가 묻고 싶다"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최 회장과 페이스북으로 설전을 이어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대한의사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제 강패지 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아마 국민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라며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이냐. 쫓겨나가 뛰니 망동어도 뛰나 보다"라고 각을 세웠다. 이에 김 의원은 또다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 건가"라며 "혹시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어서 그런가"라고 받아쳤다. 뉴스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영선·우상호 興경선 레이스 막바지... "굳히기냐 뒤집기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주당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는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경선 투표를 앞두고 금주에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열어가며 표심 확보에 나선다. 박 후보가 우세를 이어갈지, 우 후보가 추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를 갖는다. 두 후보는 각 10분간 비전 발표를 하고, 사전 접수된 시민들과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다. 다음날부터는 본격적인 토론 대결이 진행된다. 두 후보는 22일 오전 BBS 라디오 '박경선의 아침저녁'

수 있는 행정이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이다. 우 후보는 철길과 강변북로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35층 초고 제한 완화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적통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과상언 변호사를 만나며 친노(親盧·친노무현), 친문(親文·친문재인) 이미지를 부각했다. 두 후보는 경선 레이스 초반 '우에 좋은 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줬으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날 선 공방도 피하지 않고 있다. 우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 전 BBS 라디오 '민중당답지 않은

박영선, '백신 주사기' 성과 홍보 행정가 능력 부각 우상호, 친노·친문 이미지 부각하며 당심 지지 호소

에서 양자토론을 벌인다. 이어 오는 24일에는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맞붙는다. 그리고 경선을 하루 앞둔 오는 25일에는 KBS 특별 편성으로 오후 10시50분부터 1시간 10분간 양자토론을 진행하며 표심 공략에 나선다. 박 후보는 주거·교육·헬스케어 등을 2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21분 도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수직정원도시 등의 구상도 내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공급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박 후보는 공약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시절 스마트공장 지원으로 백신 특수 주사기가 대량 생산 가능해진 점 등을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박 후보는 우 후보의 강변북로 공공주택 공급 공약에 '상상만 해도 질실할 것 같다'고 날을 세우는 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경선 투표를 앞두고 굳히기를 꾀하는 박 후보와 뒤집기를 노리는 우 후보는 각각 공약의 장점을 최대한 알리는 동시에 상대방 공약에 대한 송곳 검증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다음달 1일 오후에 결정된다. 먼저 오는 26~27일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치러진다. 이어 오는 28일과 다음달 1일에 권리당원 ARS 투표와 시민 ARS 투표까지 진행된 다음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전라북도 파이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권역 민생현장 방문을 위해 전북 부안군을 방문한 20일 직소선 캠버리 과정활동장 설립부지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 위로금, 선거용 위로금이라 고백해라" 국민의힘 "국민 혈세 돌려준다며 위로금이라 명명...최악"

국민의힘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민 위로금에 대해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확진자 급증으로 3차 유행 재확산 우려마저 커졌다.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 벌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을 상상하며 위로금부터 꺼내는

게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배 대변인은 "받은 세금을 대규모 알바비로 그냥 나눠준다. 이제는 코로나19 위로금으로 나눠준다"며 "국민의 혈세를 돌려준다면서, 시혜를 베풀 듯 위로금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위선을 넘는 최악이다. 위대한 국민을 원시 유권자로 보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소병철 의원, 비리 법관 의원면직시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 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서 17일 열린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소 의원은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아야 할 법관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으로 범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 이후에 전관예우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또한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미약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지적하였다. 동부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